

금강소나무 가치의 재조명(Ⅰ)

추앙목하면 소나무중의 소나무이다.

울진군 일원의 금강소나무의 우수성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져 있고 이들 소나무림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사)한국임정연구회와 울진군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 10. 8일 울진군 현장에서 가진 바 있다.

본고는 동 세미나에서 임업연구원 김외정 산림자원부장이 발표한 내용을 앞으로 몇차례에 나누어 전제하고자 한다. - 편집자

김 외 정 / 임업연구원 산림자원부장

요 약

금강소나무는 태백산맥을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그 수형이나 재질적으로 세계적 명목으로 손색이 없는 수종이다. 이를 보존하고 집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유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제적,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강소나무는 문화재용 목재로서 소재의 원형보존원칙으로 인해 외재가 배제된 국산재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성, 공공성 및 고품질성 때문에 공급자시장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고품질 금강소나무의 부족으로 증가하는 문화재수리용 목재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강소나무림은 지역민의 소득원으로 대단히 중요한 송이자원의 보고로서 관리보존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이 금강소나무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사회경

제적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보존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후기 조상의 시신을 모시는 관곽 재용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60처의 황장봉산을 지정하였다. 이 중 3처를 제외한 57처의 황장봉산은 대부분 현재의 금강소나무 분포지역에 지정되었다. 이러한 지혜를 오늘날 계승하여 문화재수리용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금강소나무 생산권역을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는 금강소나무림의 보존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Ⅰ. 시작하며

금강소나무를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누가 토를 달까마는 그 보존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지는 알 수 없다. 곧고 높이 자라는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금강소나

무에 대해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금강소나무는 이런 수려한 외관의 형태적 우수성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 금강소나무의 다양한 가치를 모두 논할 수는 없겠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에다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금강소나무를 왜 보존해야 하는지를 우선 말해보고자 한다.

1999년 동해안산불은 최소한 산불관측이 이루어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의 산림재해였다. 이 산불로 인해 약 24천ha의 산림(그 대부분은 소나무림)과 천억원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해안산불은 엄청난 피해 규모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그 복구 또는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역시 세인의 관심이 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동해안산불의 피해목 대부분이 금강소나무였다는 사실로부터 본 주제와 관련한 금강소나무림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서두에 말해보고자 한다.

당시 동해안산불의 최대 피해지역은 삼척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삼척 산불피해지의 복구방안을 고려할 때 산림생태계를 고려한 복원, 지역민들이 원하는(경제성을 고려한) 복구 등이 제시되었다. 이때 또 하나 고려할 것이 있었다. 바로 삼척 국유림 피해지 중 일부가 조선시대 이후 약 300년간 봉산(封山)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었다는 역사성이다. 조선후기 정부가 직접 필요로 하는 목재의 대부분은 소나무였으며 조선정부는 우량한 소나무림이 자라는 곳을

봉산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관리를 기울였다. 이러한 산림제도의 일환으로 조선후기 삼척의 우량한 금강소나무림에 5처(處)의 봉산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금강소나무림의 역사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과거 봉산지역의 피해지는 소나무림으로 복원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동해안산불의 피해지 중의 하나인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의 영은사를 가보자. 주위 소나무숲이 산불로 없어지고 홀로 남은 영은사는 이미 과거의 영은사라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산불이 나기 전 영은사를 둘러본 사람이라면 소나무림이 사찰의 경관에 미치는 가치를 쉽게 알 수 있다. 사찰과 주위의 소나무림은 하나의 경관을 이루고 있기에 앞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영은사는 본래의 경관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산불피해 지역의 산주들 역시 복구조립 수종으로 84.6%가 소나무를 원했다(동해안산불지역 정밀조사 보고서 II, p.81). 가장 큰 이유는 지역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송이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울진군은 서면의 금강소나무를 벌채하여 경북공의 복원에 필요한 문화재수리용 목재로 이용하고 있다. 금강소나무와 송이가 공생을 하듯이 금강소나무는 목재가치로, 송이는 단기소득원으로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큰 가치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금강소나무림의 보전전략을 수립할 때 생태적, 유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관적, 경제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 금강소나무 가치의 시대적 변천

1. 우리의 민족수(民族樹) 소나무

“소나무 아래 태어나 소나무와 더불어 살다가 소나무 그늘에서 죽는다”. 소나무와 우리 민족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수많은 말들 중에 이 구절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 민족 구성원이면 어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나무. 추울 때는 땀감으로, 집 지을 때는 건축 자재로, 배고플 때는 구황(救荒)으로, 죽을 때는 관재(棺材)로 이용한 우리 소나무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한 친근한 나무였다. 너무 친근하면 가볍게 여길만도 한데, 우리 선조들은 소나무를 더욱 높였다. 소나무의 ‘솔’ 자체가 우두머리라는 뜻이며 추운 겨울날에도 늘 푸른 기상을 잃어버리지 않아 선비들이 더욱 좋아하는 「百木之長」이요 「萬樹之王」으로 여겼다. 소나무는 언제나 절개와 의지의 상징이었기에 충과 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에게 그 상징성은 더욱 컸다.

현시대의 우리 국민에게 소나무는 어떤 존재인가? 한국갤럽이 1991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두 차례 모두 소나무가 수위를 차지하였다. 수백종의 나무들 중에서 소나무는 '91년 54.8%, '97년에는 45.7%의 한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선정되었다. 사회 여론을 선도하는 ‘여론 선도층’ 역시 53.1%('97)가 소나무를 가장 좋아한다고 답하였다. '97년 조사결과에 따

르면 2위를 차지한 은행나무가 7.5%, 3위를 차지한 동백나무가 5.5%(한국갤럽, 1997)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민에게 소나무는 단순한 수종이 아닌 것이다.

이렇듯이 소나무가 우리민족에게 있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한 [民族樹]였는데 소나무 중에서도 금강소나무는 우리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였다. 조선시대는 유교사상과 결부되어 양생송사의 바탕이 되는 귀중한 목재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왕실용과 정부용으로 이용되었던 관재(棺材)와 건축재가 대부분 금강소나무가 분포하는 강원도, 경북지역의 황장봉산(黃腸封山)에서 공급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금강소나무의 뛰어난 목재 가치로 인해 일제강점기에는 강릉, 삼척지방의 금강소나무가 대량 벌채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춘양역에서 집산되어 서울로 들어온 금강소나무-흔히 춘양목(春陽木)이라 부른다-를 이용하여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이 금강소나무의 가치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간략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조선시대 양생송사(養生送死)의 중심에 섰던 금강소나무

맹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정적으로 먹고사는 것과 부모가 죽어 영영 떠나보낼 때 성심껏 보낼 수 있도록 왕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이 왕도정치의 시작이라고 여겼다. 이 중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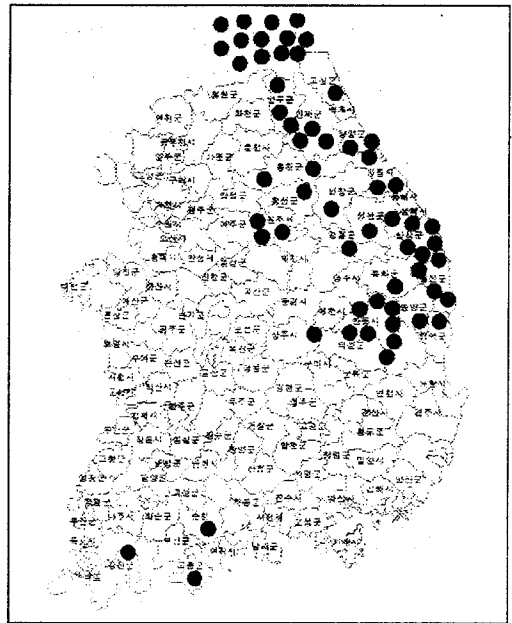
림에서 나는 목재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집을 짓고 관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생송사(養生送死)하는 중요한 한 조건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주택이 나무로 지어졌으며 부모·자식간의 인륜(人倫)은 곧 천륜(天倫)으로 받아들여졌기에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좋은 나무로 관곽(棺槨)을 지어 안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대사(大事)로 여겨졌다.

바로 이러한 양생송사에 필요한 건축자재와 관곽재(棺槨材)로 이용된 대표 수종이 금강소나무였다. 특히 일반민보다 왕실과 권세있는 집안에서는 반드시 금강소나무를 이용하여 집을 짓고 관곽을 짰다. 조선 후기 봉산(封山)을 선택한 이유 역시 “위로는 황장목(黃腸木=관곽재)을 공상(供上)하고 아래로는 선재(船材)를 대비하기 위한 것”(정조실록 정조 7년 10월 29일 정해조)이었다.

조선후기의 봉산제도는 합리적 산림관리를 위한 지금의 용도림 지정제도로 볼 수 있다. 현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듯이 조선시대에도 선재 및 건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봉산, 지정학적 요충지를 보호하기 위한 봉산(관방봉산), 관곽재를 공급하기 위한 봉산(황장봉산), 그린벨트의 기능을 하였던 봉산(한양 근처의 四山)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결국, 조선후기 대표적인 용도림인 황장봉산의 설정 이유는 양생송사를 중시 여겼던 유교관념을 밑바탕으로 한 관곽재의 안정적인 공

급에 있었으며 그 대상이 되는 수종은 금강소나무였다. 이를 잘 증명하는 것이 당시 조선후기 황장봉산의 지리적 분포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조선후기의 총 황장봉산으로 60처(處)가 지정되었는데, 현재 금강소나무가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 57처가 지정되었다. 이를 보더라도 현재의 금강소나무가 분포하는 지역은 과거 조선시대부터 정부용 목재의 안정적 공급처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주: 지도 외곽의 13처 황장봉산은 북한지역 강원도에 분포

〈그림 1〉 조선후기 황장봉산의 분포(만기요람)

급금강소나무의 보전전략을 수립할 때 바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금강소나무림은 여러 생태적 인자와 함께 인간이 관리해 온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현재 우량한 금강소나무림이 과거부터 우리 민족이 봉산제도를

통해 관리해 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문화재수리용 목재공급을 위해 산림청에서 지정한 「문화재용 목재생산림」은 바로 조선시대의 금산·봉산제도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산림청, 2001). 물론 이러한 산림관리 방안은 최근 경북궁 복원 시 겪은 외재 사용과 목재의 갈라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량한 금강소나무가 존재하는 국유림을 선정하여 민족 문화의 전통성을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 즉 조선시대의 봉산제도의 역사성에 현대의 과학적 방법을 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일제 강점 이후 잊혀졌던 봉산제도가 1세기가 지난 지금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장기적인 산림계획을 통해 일본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용도림제도를 우리보다 앞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본 혼슈(本州) 남부 미에(三重)현에 위치한 이세신궁(伊勢神宮)은 신사건축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이다. 내궁(內宮)과 외궁(外宮)으로 이루어진 이세신궁은 기원전 4년에 내궁이 만들어지고 5세기말에 외궁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원형을 유지한 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옛날의 목조건물이 지금까지 전해내려 올 수 있었던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다시 짓고 그 안에 모셔진 신을 옮기는 의식인 식년천궁(式年遷宮)의 전통 때문이었다. 현재는 20년마다 천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

년 65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이천년간 이어온 전통을 보기 위해 이세신궁을 찾고 있다. 물론 690년에 처음 천궁이 이루어진 이후 1993년 61회 천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천년을 이어온 전통은 일본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김석철, 1997, p.104).

일본 정부는 식년천궁에 사용되는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무려 이백년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 식년천궁에 필요한 굵고 곧은 편백나무가 점차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한 일본 정부는 다이쇼시대(大正時代)부터 “신궁산림 200년 계획”을 세워 매년 봄 기소(木曾)강 상류에 이백년, 삼백년 후에 쓸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오고 있다. 현재도 신궁용 목재를 위해 기소 계곡에 약 3,600ha의 산림을 “목증 편백나무 문화재 등 대경재 특별생산군”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1993년 61회 천궁은 이렇게 잘 가꾸어진 산림에서 1985년 나무를 벌채한 이후 약 27회의 제사와 치밀한 준비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배재수, 1999). 이러한 준비는 목조건축문화재의 복원이라는 전통성의 계승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키워주는 저력을 다음 세대에 유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계승방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일제강점기 수탈대상자원이었던 금강소나무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산림정책의 핵심은 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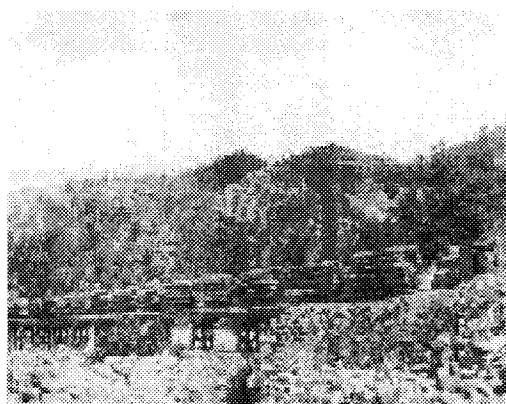
록강, 두만강유역의 우량한 산림자원의 벌채를 통한 총독부의 재정충당에 있었다(배재수, 1998).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시대와 달리 목재 역시 국제간 무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기계력을 이용한 제재기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목재가 필요하면 어떻게든 국내에서 해결하여야 했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 개방된 20세기에는 목재도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설령 많이 있다고 하여도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대형 제재시설을 이용하여 목재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길고 곧은 목재가 비용절감에 유리하다. 목재 수율(收率)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굵고 키작은 나무는 목재 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더불어 1930년대 이후의 산림철도의 부설은 지금까지 이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목재자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시대까지 소나무 하나만을 바라보았던 목재이용 패턴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금강소나무가 아닌 일반 소나무는 더 이상 건축재로서 이용될 수 없었다. 단지 땃감으로 이용될 뿐이었다. 북부지방의 산림은 수탈되어 만주로 넘어갔고 부족한 목재수요는 일본에서 이입(移入)하여 충당하였다(배재수, 1998). 과거 소나무가 차지하였던 명성은 압록강, 두만강지역의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가 대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종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릉, 삼척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던 금강소나

무였다.

금강소나무의 재질적 우수성은 다음절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목재에 관하여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에서도 인정받았다. 1934년 강릉영림서장 앞으로 보낸 통첩에 따르면 강릉영림서 관내의 금강소나무를 일본의 관서(關西) 방면으로 실어 갈 수 있도록 알맞게 造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赤松材造材=關スル件, 1934. 5. 11. 林業乙 第394號).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금강소나무를 이용하고 싶어도 반출조건이 미비하여 그 실적은 저조하였다. 총독부로서는 아까운 금강소나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기에 북부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유일하게 산림패도를 강릉영림서 관내 삼척(마음천궤도)에 설치하였다. 이 궤도를 따라 베어진 금강소나무는 호산항에서 집재되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림 2〉 삼척지방의 금강소나무를 베어 산림궤도를 통해 운반(1940)

4. 해방 후 민생 목재였던 금강소나무

해방 이후 1955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금강소나무는 춘양목이라는 이름으로 건축용재 및 뿔감으로 이용되었다. 지금까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일제가 춘양역을 통해 금강소나무를 수탈”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앞 절에서 서술하였듯이 일제의 금강소나무 수탈은 삼척 지역의 산림개도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춘양역 자체가 1955년에 개통된 영암선의 한 역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춘양목 역시 해방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조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춘양역에서 운송된 금강소나무는 최상급의 목재로서 당시 최대 목재수요처인 서울 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었다. 1955년 목재 화물발송량이 약 1,200톤에 불과하던 것이 1972년에는 약 1.6만톤으로 '55년에 비해 약 13배나 증가하였다(황재우, 1993. 소나무와 우리 문화. pp.124). 1970년대까지 당시 물가를 소개하는 신문 지면에 춘양목이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은 그만큼 목재에 의존했던 사회경제구조 때문이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추운 겨울을 나고 간단한 집이나 마 지으려면 목재는 필수였는데, 당시 금강소나무의 쓰임새는 이처럼 민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연료혁명이 성공을 거두어 집집마다 나무 대신 연탄을 이용하게 되었다. 연탄은 다시 가스과 기름으로 대체되었고 현재는 아주 오지가 아니면 나무를 연료로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목재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외

국에서 값싼 목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거친 후 수출하는 체계로 변화하였다. 1970년대의 합판산업이 대표적이며 그 이후에도 가격과 품질을 무기로 외재가 물밀 듯이 국내로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95% 전후의 목재를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외재의존적 목재시장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금강소나무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의 금강소나무는 추위를 막아주고 집을 짓는 연료재와 건축재로서 역할을 하였다면, 1990년부터는 문화재수리용, 한옥 또는 사찰건축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자가 민생과 밀접한 가치라면 후자는 민족문화와 연계된 가치로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시대에 따라 금강소나무의 가치는 변화하였다. 왕실과 정부용으로 사용하던 금강소나무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혼란기의 수난을 딛고 현재 다시 우리의 전통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금강소나무의 역할은 문화재복원과 같은 민족문화의 계승이며, 우리들의 역할은 이러한 금강소나무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금강소나무림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금강소나무의 가치는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가치를 더욱 확장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다. <다음호에 계속>